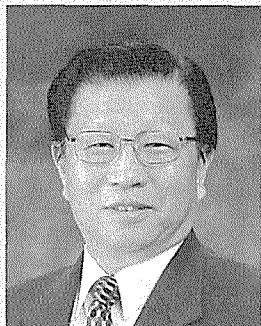


## 고유가를 극복하는 길

-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 절실히 필요해
- 개방화에 걸맞는 에너지 세제개편 기대
- 민간주도의 에너지소비절약운동 확산되어야



이 종 원  
〈대한석유협회 회장〉

현재 원유가는 또 다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석유산업계는 수익성과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 리나라는 하루평균 24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이고, 올해 에너지 수입액이 3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에너지 다소비국이 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석유수입국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석유 한방울도 나지 않는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석유문제만은 국제원유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주종 수입원유 두바이유의 작년도 평균도입가는 17.3달러/배럴에서 올해에는 21.5달러/배럴로 25%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물가는 1.62%, 오르고, 수출은 5억달러가 감소되는 반면, 수입은 20억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유가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정유사들의 정유마진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며, 물가상승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원유가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석유산업계는 수익성과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석유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당면한 석유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은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 진출이래 작년말 현재 총 94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22개국에서 5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작년말까지 확보한 원유가채매장량은 670백만배럴 수준이며, 개발원유의 자주 공급물량은 99년중 약 14백만배럴로서 이는 원유수입량대비 약 1.6%에 불과해서 2010년까지 정부의 목표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IMF사태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석유개발사업분야만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으나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 정유사 자주개발원유 도입분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세제혜택부여, 특별부담금의 경감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대폭 수용해야한다. 또한 기술인력의 꾸준한 양성과 아울러 메이저급의 에너지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등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석유산업이 살아남는 길은 하류부문의 발전만으로는 결코 어렵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국제메이저급 회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석유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이 대등하게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아울러 석유업계의 지구노력 또한 크게 요망된다.

현재 세계의 석유광구시장에는 유망하고 좋은 조건의 광구가 많이 나와 있으나 기업들이 자금문제 때문에 투자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 예산(약2조원)중 석유개발관련 예산은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나 이를 최소한 10%까지는 끌어 올려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방지역 개발사업 진출의 길이 열리기를

국제메이저급 회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석유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이 대등하게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와 아울러  
석유업계의 지구노력  
또한 요망된다.

기대한다.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포용정책과 4강외교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남북한 화해의 물꼬가 북방에너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현재 세계의 석유가채매장량 2조 5,700억배럴의 24%에 해당하는 6,120억배럴이 중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매장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북반지역을 발판으로 하는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개발 진출의 필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고조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서해연안에 매장 가능성 있는 유전의 공동개발 여부와 북한을 가로질러 중국과 러시아대륙 진출 등 석유가스개발업계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둘째, 고유가 추세에 대비한 합리적 에너지 세계개편이 요구된다.**

정부의 개방화 정책에 걸맞는 세계가 요망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에너지 세계는 현안을 그대로 입고 있는 느낌이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는 현재 이러한 에너지 세계개편 작업을 추진중이어서 석유업계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차제에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를 비롯한 석유류 관세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관세차등화와 같은 취지로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도 차등화 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련 내국세제의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행세 비중 강화 등으로 에너지 관련 세수중 석유류 조세부담을 더 늘려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세 도입문제 또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세계가 개방화된 시장기능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셋째, 민간주도의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자체를 저소비구조로 전환시키는 정부의 시책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어서 큰 절약을 이루어 내는 동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 실

에너지관련 내국세제의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행세 비중 강화 등으로 에너지 관련 세수중 석유류 조세부담을 더 늘려서는 안된다. 탄소세 도입문제 또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

내온도 낮추기, 한집 한등 끄기, 수돗물 아껴쓰기 등 작은 절약들을 모아서 큰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수돗물 아껴쓰기도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진다. 이런 작은 절약생활의 실천과 아울러 산업용, 수송용, 가정용 등 모든 에너지 소비분야에서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시설물 개체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자체를 저소비구조로 전환시키는 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큰 절약을 이루워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IMF이후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2년 연속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루워 냈다.

그러나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이 올라 있고, 작금에는 수입과 대외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우리 정부의 120억달러 흑자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소비와 지출을 계속하고만 있다면 국제수지는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근검절약 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이웃들이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데 해외 골프여행, 고급외제 승용차와 값비싼 외국산 소비재를 자랑삼아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사용한 달러가 모이고 모여서 국제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수출을 증대하는 길은 반도체,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 수출주도산업에만 기대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주도의 소비절약 운동을 통해서 나라살림과 가정살림을 돕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구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

민간주도의 소비절약  
운동을 통해서  
나라살림과 가정살림을  
돕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구현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